

“배움의 끈 놓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열정 배웁니다”

초등교사 정년퇴직 후 한글 재능기부 **홍성권** 씨

빛고을·효령동 노인건강타운서 한글·한문수업

60~70대 수강생들 “새로운 세상 보여 준 천국”

“받아쓰기 시간입니다. 공책과 연필·볼펜을 제외하곤 책상에 다 집어넣으세요..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공책에 적습니다.” 18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2층 강의실.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자신이 적어온 수첩을 보며 한자씩 또박또박 읽어내려가자 수강생들은 잔뜩 숨을 죽였다. 노신사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말하자, 수강생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한자씩 써내려갔다. 노신사는 수강생 옆을 지나가면서 잘못 쓴 글자가 있으면 바로 지적한 뒤 바로 잡아줬다. 이 노신사는 초등학교 교사로 40년을 보낸 뒤 2007년 정년 퇴직한 홍성권(68·광주시 북구 일곡동)씨다. 한글 강사로 인생 2막을 펼쳐며 한글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그는 “인생 2막이라고요? 1막이나 다름없어요. 어린 학생들 가르칠 때 보다 더 바쁘니까요.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너무 진지하다”라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홍씨가 강의에 임하는 모습은 현직 교사들보다 더 진지했다. 가정형편과 경제사정 등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한 만학도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곳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반은 한글교실 초급·중급반과 한문교실 초급·중급반 90명·4개반이다. 초급반 실력은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으로, 연령대는 주로 60~70대 중반이다. 그는 일주일에 네차례(월요일~목요일)씩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동노인건강타운 등 2곳을 오가며 한글·한문교실

강의를 하고 있다. 그는 강의 준비와 수업 시간 등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투자해 강의에 나서느라 힘들 법도 하지만,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는다. 배움의 열정을 갖고 자신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재능기부를 시작했다. 그간 그를 거쳐간 제자들만도 무려 800명. 그는 “비록 밑반침이 틀릴지라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열정이 느껴져요. 오히려 이들로부터 노년의 열정을 배우고 있죠”라고 말했다. 한글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가장 아쉬운 대목은 배우려는 학생에 반해 한글 교실 프로그램이 적다고 했다. 홍씨는 “광산구 첨단에서 이곳까지 오는 분들도 있어요. 동네에서 배우는 게 민망해 이곳까지 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없어 이곳을 찾는 이들도 많죠”라고 설명했다. 홍씨가 재능기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땐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을 통해서 서서히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볼 때다.

한글을 잘 깨친 수강생들은 “한글교실은 새로운 세상을 보여 준 천국”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모(72) 할머니는 “내 이름도 못쓰다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어 너무 기쁘다”라고 말했고, 김모(68) 할머니는 “옛날에는 고지서가 오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옆집에 물어봐야 했는데, 지금은 스스로 알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흡족해했다. 그는 “이들이 버스 행선지와 광고판을 읽고 누군가 앞에서 떼뻗하게 자랑하는 것도 또 다른 기쁨 중 하나일 것”이라며 “학생들은 배움 그 자체를 즐긴다. 초급반의 한 학생이 있는데, 몸이 아픈데도 수업에 나오기도 했다”고 자랑했다. 홍씨는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방식의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는 재미를 느끼면서 일상생활에 바로 접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한글교실 강사 홍성권(68)씨가 18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강의실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 수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겨울철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독거노인 보호종합대책 수립, 사전예방활동 나서

광주시 각 기초자치단체가 겨울철을 앞두고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 ‘독거노인 보호종합대책’을 수립, 사전예방활동에 나섰다. 동구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독거노인 보호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한 뒤 폭설·한파 등 어르신들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우선 동구는 이달 말까지 독거노인 3500명과 경로당 107곳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한파·화재·폭설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어르신들이 난방기기 사용법·겨울철 행동요령·비상연락망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연락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 중이다. 북구도 최근 폭설·한파 시 일시거주 가능한 임시대피소 운영과 가스·전기시설물 등 한파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골자로 한 ‘독거노인 보호종합대책’을 만들었다. 송광은 북구청장은 “겨울철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부서별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동구 ‘통합건강증진사업 알림단’ 발대식

금연·비만·치매·재활 등 각종 보건사업 주민들에 홍보

광주시 동구는 18일 구에서 추진중인 각종 보건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민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알림단’(이하 알림단) 발대식을 가졌다. 주민 50명으로 구성된 ‘알림단’은 구에서 실시 중인 각종 보건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알림단’은 이달 말부터 총장로·금남로·동적골·경로당·동 주민센터 등지를 순회방문, 각종 보건사업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는 그간 국가 주도형 보건사업 이외에도 주민 수요와 특성에 맞는 금연·절주·비만·치매·재활사업 등 맞춤형 보건사업을 발굴해 추진해왔다. 노회용 동구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각종 보건사업 홍보 효과를 높이고 지역민들이 보건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수혜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보건사업을 통해 주민만족도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추위 대비 노숙인·쪽방주민에 응급잠자리

복지부, ‘동절기 보호대책’ 시행- 연료비 지원·시설안전점검

이른 추위로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된 노숙인과 쪽방 주민 약 2만명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응급잠자리 제공 등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2013~2014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등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전국의 노숙인은 1만2817명이며 쪽방 주민은 5776명에 이른다. 노숙인 가운데 4759명이 서울에 몰려있으며, 1464명은 시설이 아닌 거리 생활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추위가 일찍 시작된다는 예보에 따라 이달부터 겨울철 노숙인 위기관리사업을 작년보다 확대 실시키로 했다.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24시간 상시 운영해 위기에 처한 노숙인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시보호시설과 응급구호방 등 응

급잠자리를 개방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엔 노숙인에게 임시 주거비를 지원하고 진료와 구직지원도 연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쪽방 거주자 등 저소득층 2800여명에게 넉 달간 매일 연료비 8만5000원을 지원한다. 가스누출이나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에 취약한 쪽방촌의 시설안전점검도 실시한다. 한파주의보가 발표될 때에는 보일러가 고장난 가구를 인근 교회와 경로당 등 한파대피소와 인근 여인숙으로 대피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송하한정식

동구 금남로2가 10번지 (구.동구청 골목)
한정식전문 단물순삼, 모임예약반음
대표 이미지
☎(062)225-9278

바위섬횡집

쌍촌동 1346번지 호반3차@정문건너 먹지골목
각종회전문 참승어유니끼
참동유비끼(하루전예약)
점심메뉴:우럭지리매운탕,꽃게장백반,초밥
☎(062)372-4224

is(이즈)

동구 남동 169-1번지
대표 이옥진
☎(062)222-5425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42-1번지 수영노인당옆
사주, 관상, 궁합, 택일, 개명
재물운, 혼사, 묘지상담
☎(062)224-7687

고 전 방

동구 공동 34-4번지 중앙초등학교후문
도자기,서양화,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현대부동산

동구 금동 154-2번지 전대병원주차장앞
동산, 부동산 매매전문
대표 선종팔
☎(062)227-6303

예림화방문구센터

동구 공동 55 중앙초교길 예술의거리
디자인재료,동양화재료,건축모형재료
사무용품, 제도용품, 각종석고
각종 종이류,문구재료등
☎(062)222-8143

막둥이해물나라

진월동 411-1번지 대성여고아래
해물찌, 해물짬뽕 전문
단체 손님환영
대표 최유숙
☎(062)651-9268

광 남공인중개사

북구 유동 15-14번지 2층 유동로타리
광주 전지역부동산
분야별 매수·매매 취급 전문및 상담
대표 최승권
☎(010)2363-6996

한우짜갈비전문점(첨단점)

광산구 쌍암동 664-6번지 첨단병원옆
한우참숯구이전문
갈비살, 꽃등심, 안창살
최선의 서비스
☎(062)971-5666

365부동산

백운동 453 백운현대아파트입구 제일@후문
365일 신뢰와 책임중개로
임하겠습니다
☎(011)617-2296

삼각그린이발관

북구 삼각동 그린타운@상가 108호
염색등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062)574-6583

가디언엔젤스

학동 628-1번지 휴먼시아1차입구
병원동행서비스
등하교/ 등하원서비스
☎(062)222-0882

프렌치스토리

백운동 586-21번지 석산고앞 귀파출소지리
돈가스와 치킨이 맛있는집
☎(062)471-8253

현대헬스클럽

백운동 현대@먹지골목 이비동김지랑3층
365일 연중무휴,관장직접지도
사위시설언비, 사물함무로지급
전화원1 : 1맞춤지도/6개월10만원
☎(062)652-5283

삼보컴퓨터첨단점

월계동 835-1번지 월계초등학교에서 방통대사이
모든 컴퓨터 수리 전문점
대표 김경모
☎(062)972-3512

안경타임

화정동 KB국민은행 쌍촌초지점옆 화정대주교로옆상가
이젠 안경도 패션이 되는 시간 !!
대표 문호섭
☎(062)382-5514

족석우리두부

서구 쌍촌동 상무시장내
족석 웰빙 두부전문점
순두부, 콩물 생산 도.소매
대표 문장규
☎(062)374-9082

와우와우당구클럽

북구 유동무등동도사거리현대자동차골목
최신형 하리우드 당구대1실치완비
쾌적한공간, 최고의서비스로 고객을 모십니다
대표 이지훈
☎(010)7706-7669

송원헬스

서구 쌍촌동 쌍촌역앞 송원마트3층
24시 365일 연중무휴, 운동복, 수건무로
5개월11만원, 신입회원수시모집, 시류저렴모델링
☎(062)382-9777~ 8

엘리체공인중개사

북구 용봉동 용봉엘리체상가 103호
분양권, 아파트, 상가, 토지 매매및임대
계약에서登記까지
대표 나정자
☎(062)529-6100

희망근로자대기소

내방동 신현대학교사거리 농협은행2층
일반공.토공.목수.철근비계.창호잡철미장방수 조정
페인트.주방.파출부.건축.토목특허 인력사무소
☎(062)430-0800

금탑공인중개사

남구 진월동 포도원교회 주차장앞삼거리
아파트,주택,상가,빌딩,원룸,토지 매매및임대
전월세 앞선 각종부동산 컨설팅 상담전문
☎(062)525-8858

한우국밥

동구 학동 618-9 조대병원 응급실입구
한우 보양식, 수육 등
대표 신명식
☎(062)227-1666

리 본

최신유행 여성의류,수공예 각종악세사리 판매
리본수강생 수시모집
☎(062)266-0838

고운의원

동구 학동 618-6번지 보문빌딩2층
(조대 병원옆 주공103동옆)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062)236-0075